

## 섬김의 교회는 ...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와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갑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 치유, 회복과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 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예배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am
주일학교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뉴 라이프 교회)
주일 성경공부	Sunday Bible Study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Friday Service / Friday 8:00 pm
새벽 경건회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 to 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주중성경공부	Bible Studies / Tuesday 8:00 pm (zoom)
일대일 제자훈련	Discipleship Classes / Monday 10:00 am

## 교회위치 Location



800 E. Palatine Rd., Palatine, IL 60074  
847) 691-7846  
www.churchofservant.com

2024년 1월 28일

새로운 출발의 달  
선교 주간

## 건강한 믿음 성장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한 3서 1:2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에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 민 집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민수기 3:1-51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충성하자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310장 (통일찬송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나눔)	봉헌 오정은 집사 / 구 민 집사 ★봉헌찬송 / 213장, 4절 (통일찬송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세상과 삶으로	★찬양 / 찬송 536장 (통일찬송 32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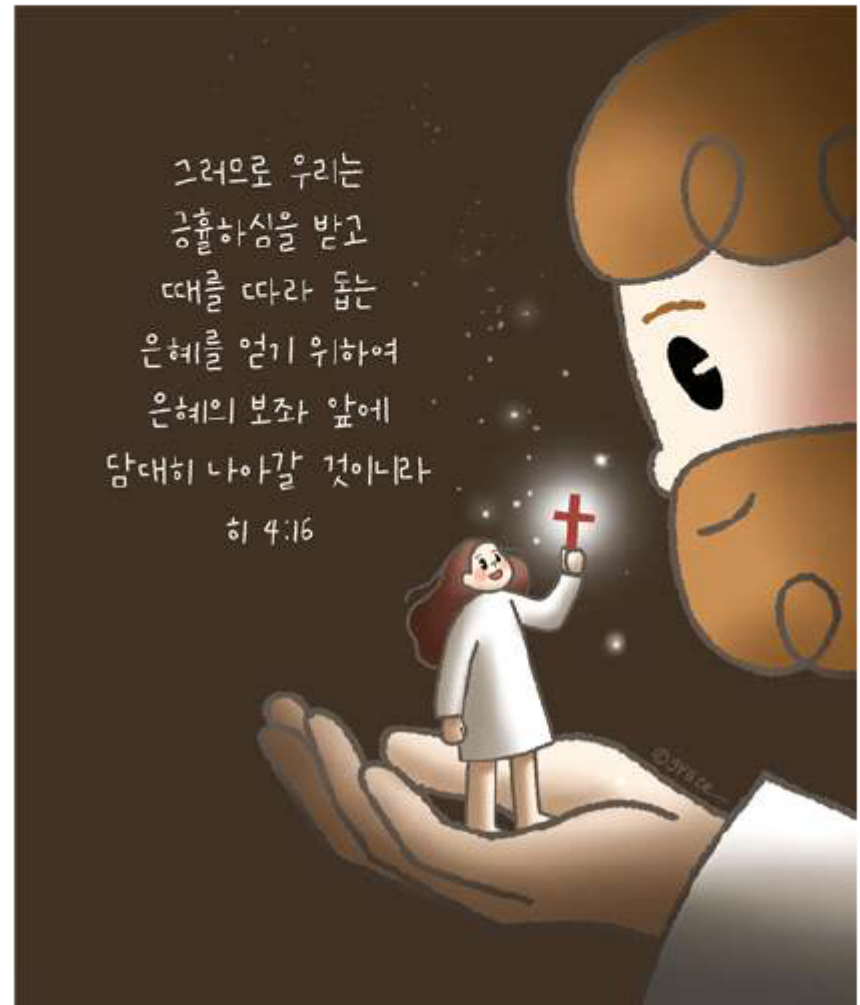
★ 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예배시간 10분 전 휴대전화를 끄고, 무상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 금요 찬양예배

#### 찬양과 기도

성경: 사무엘상 19:4-7, 20:12-23  
묵상제목: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6

걱정하고 염려할 문제는 한꺼번에 터진다.

문제가 밀려오면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게 된다. 그러나 물에 빠져 허우적대면 더 깊은 물로 끌려간다.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고백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신다.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평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잠 16:3)

## 삶과 신앙 기도가 안 될 때 꼭 기억할 조언

기도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고 주께 말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주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필요한 거룩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매일 아침 그렇게 하라. 초창기에 나는 답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늦게 까지 자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기다렸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성령께서 안내하는 말씀을 주실 때까지 성경을 읽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에 축복해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보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눅 22:44) 전투적으로 기도하신 이유는 딱 하나이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다 틀렸어... 주님께 돌아갈 영치가 없어...  
아니오. 상손은 완전히 불잡힌 상태에서 회개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탕자의 마음이 떠날 때부터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사랑.  
기억하세요. 계속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에 기도의 수고가 선행되거나 동반되지 않으면 한갓 인간의 노력으로 변질되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 소금과 빛

성김의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점심친교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역/행사** 1월 새 출발의 달입니다.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 네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1. **선교 주일**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전파하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섬김, 소망의 인내로 치유하고 회복하며 나누는 증인입니다.
2. **선교 주간** 하나님 나라와 복음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제직회/공동의회** 예배 후에 가집니다.
4. **성경읽기운동** 성경 일독 운동이 계속됩니다. 더욱 힘 냅시다.
5. **중보 기도** 매일 낮 12시, 저녁 9시 다 함께 기도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6. **나눔과 교제** 앞으로 주일 점심 친교 후 각자의 삶을 신앙 안에 나누며, 교회의 성장을 위해 교제하도록 합니다. (3:00-4:00pm)
7. **연합 금요 찬양예배** 이번 주 금요일예배(2/2)는 살롬교회에서 함께 드립니다.

**교우소식** 한국방문: 구은강 집사  
싱가폴 방문: 유명원 성도

**생일축하** 김기자(4) 김영준(7) 이진아(5) 박강현(20)  
구민성(26) 최윤정(28)

**1월 사역**  
제직회/공동의회(28) 선교주일(28) 선교주간(28-2/3)  
만남/나눔 주간(2/4-11) 믿음 성장 주간(2/11-17) 소금/빛 주간(2/18-24)

**한 주간의 말씀** 시편 51:17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위해, 레위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레위인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은 장자 273명을 위해, 속전, 한 명당 5세겔을 드렸다.

레위 인들을 위해, 제사장들이 지도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속전과 속죄의 특권을 짊어졌다.

세상과 사람들은 쉬운 길을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왜 나만 십자가를 힘들게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하느냐고 생각 하는가? 꼭 필요한 훈련이다. 사명은 특권이며 축복이다. 감사하며 충성하자.

**말씀요약**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발견한다. 군인으로 징병되지 않고 레위 남자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는 아들 셋을 낳았고, 이들은 게르손, 고핫과 므라리 3종족을 이루었고, 성막의 남쪽, 서쪽, 북쪽에 진을 쳤고, 감당해야 할 임무도 지정되었다. 레위의 남자는 22,000명, 이스라엘의 장자는 22,273명으로 집계 되었다. 레위 남자보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273명 더 많았다. 이들을 위해 5세겔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구조사가 반복된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힘들거울지라도, 필요한 훈련이며,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서이다. 세상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1.25%인 273명도 귀중하게 생각하시며, 단 한명도 소외시키지 않으신다. 한 사람당 5세겔(장정의 20일 품삯)을 바쳤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때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나타난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레위의 남자들은 제사장들에게 위탁되었다. 속전역시 그렇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마다 자신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이에 더하여 장자들과 속전, 목숨 값까지 짊어졌다.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 하지만 받기 싫다고, 짐을 지기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 소명이기 때문에, 충성해야한다.

말은 일도 벽찬데,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고 생각하는가? 왜 나에게만 그러시느냐, 너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사는 데, 나만 이렇게 열심히 섬겨야 하느냐? 이렇게 따진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대제사장처럼, 어깨 위의 짐, 사명은 특권이며 축복이다. 왜 나만 시키시는가라고 불평하지 않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시느냐고 감격하자.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시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자.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충성하자.

1. 성장과 열매: 2024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들이 열매를 맺도록
2. 영성: 삶 속에서 말씀묵상과 기도로 영성 훈련하도록
3. 복음전파: 우리 삶 속에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4. 가족: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5. 교육사역: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Youth Ministry를 위해
6. Oikos 가정사역을 통해 회복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7. 선교지들과 선교사들을 위하여: 네팔/뉴욕(박은주 선교사)
8. 이웃 교회들과 연합사역을 위해

**선교 (네팔/뉴욕, 박은주 선교사)**

1.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성령님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를 갖도록
2. 새해의 사역들을 위해 (후원과 충성)
3. 건강을 위해 (가족들, 부모님의 구원)



**예배 섬김이**

**주일기도인도**

- 1월 14일 김윤경 사모
- 21일 최선윤 집사
- 28일 구 민 집사
- 2월 4일 최내권 집사

**주일봉헌인도**

- 1월 14일 최선윤/구 민 집사
- 21일 구 민/오정은 집사
- 28일 오정은/김훈태 집사
- 2월 4일 박진성/최선윤 집사

**주일예배 안내**

- 1월 구 민 집사
- 2월 김훈태 집사

**섬기는 사역자들**

지도 목사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교육전도사 (Youth Minister) Jacob Kim 전도사  
찬양인도자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